

통합 주청사 어디에 … 광주냐 전남이냐 오늘 최종 결론

광주전남 행정통합 운명의 날…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서 담판

강기정 광주시장 '배수진' … 결론 못 내면 통합 일정 큰 차질 불가피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현안인 '통합 명칭'과 '통합청사 주소재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통합청사 주소재지를 전남에 두는 '가안'을 배척하고 광주에 두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자칫 이 문제가 매듭지어 지지 않으면 통합법안 발의가 목표했던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간담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원이·양부남 광주전남행정통합 공동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8명이다.

이번 간담회는 3차 간담회에서 불거진 '통합청사 주소재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최종 담판 성격이다.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실상 통합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통합 논의는 순항하는 듯했으나 지난 25일 3차 간담회 직후 '통합시 명칭은 광주로 하되 청사는 전남에 둔다'는 가안이 나오면서 후폭풍을 불렀다.

이후 광주시 홈페이지에는 '전남이 주소재지로 정해지면 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연이어 올리웠다. 각종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지역 국회의원사무실 전화번호를 게시하면서 항의 전화를 하자는 주장까지 올라왔다.

강 시장은 26일 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률에 청사 위치를 명시하려면 주청사는 광주가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날 차담회에서 "어제 3차 간담회 결과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논란거리가 됐다"며 "애초부터 청사 위치와 명칭을 결합해 논의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로 통합명칭과 청사 문제가 연동되면서 마치 적절히 타협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가안이 도출됐다는 것이 강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여수와 순천 등 전남 일부권 주민 입장에 서도 주청사가 서쪽 끝인 무안에 있는 것보다 광주

에 위치하는 것이 훨씬 접근하기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기계적으로 청사를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시·도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강 시장은 전날 논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도 거론했다.

그는 "회의 막바지에 국회의원 등 참석자 다수가 떠난 상태에서 소수 인원으로 가안이 도출됐다"며 "이는 합의라기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가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시가 가안을 배척함에 따라 4차 회의는 사실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난상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통합 특별법안에 '청사 주소재지'를 명문화할지 여부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청사 위치를 법에 명시하면 갈등을 유발하므로 통합 후 조례로 정하거나 추후 논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정치권은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상태다.

강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사례에서도 보듯 청사 위치 문제는 통합의 결집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청사 문제의 민감성을 우려해 1청사, 2청사라는 위계적 표현 대신 상무청사, 무안청사로 부를 것을 당부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족박하다. 대전·충남이 29일 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역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명칭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법안 발의가 충청권에 밀리고 연쇄적으로 통합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강 시장은 만약 통합청사를 광주에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통합시의 명칭은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강 시장은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려 주워 담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4차 회의는 단순한 실무 협의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미래 지향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봉고 사고 광주대표도서관 부실 감리 의혹 ▶6면

엄마기자의 육아일기 - 병실에서 보낸 계절 ▶18면

광주FC 캠프 -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22면



광주 이웃사랑 온도 '100°C'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인 51억 2000만원을 훌쩍 넘긴 53억 5900만원(104.6도)을 기록하며 100도를 돌파했다.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직원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대로 추진"

한수원, 조만간 부지 공모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계획으로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이 '신규 원전 공론화'를 거론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원전을 건설)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밝언,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부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스닥 1000 돌파…4년 만에 '천스닥' 탈환

코스닥 지수가 4년여 만에 1000선을 다시 밟으며 7% 넘게 급등했다. 〈관련기사 9면〉

코스피도 장 초반 '오천피'를 탈환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밀려 4940대로 마감했다.

26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0.48포인트(7.09%) 급등한 1064.41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04년 코스닥 지수체계 개편 이후 최고치이자 2022년 이후 4년 만의 '천스닥' 탈환이다. 시기총액 역시 전날보다

38조 9000억원 많은 582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1.00% 오른 1003.90으로 개장 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장중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흐름정지(사이드카)가 작년 4월 10일 이후 291일 만에 처음 발생되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